

발행인 칼럼
"행복한 삶이란?"

새보람

SAEBORAM



이동편의시설의 현주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2)796-4280

www.kappd.or.kr

제209호

2010년 2월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2010. 5. 2

<http://www.seoul-wheelchairmarathon.or.kr>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조직위원회
 Seoul International Wheelchair Marathon Organizing Committee

바뀌지 않는 장애인의 삶... 해답은 '매니페스토!'

1월 28일, '2010년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 신년인사회' 개최

'2010년 지장협 新 프로젝트' 발표... '매니페스토 추진단 발대식' 실시



지난 1월 28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2010년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 신년인사회』에서 김정록 중앙회장과 '매니페스토 추진단장'으로 위촉된 전국 16개 시·도 협회장들이 장애인 복지증진을 염원하는 '희망의 종이비행기'를 하늘로 날리고 있다.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 보고, 몸부림을 쳐봐도 바뀌지 않는 ‘장애인의 삶’. 해답은 없는 것일까? 나는 그 해답을 장애인의 정치세력화 즉 ‘매니페스토’에서 찾고자 한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김정록 중앙회장은 지난 1월 28일(목)부터 29일(금)까지 이틀 간 경북 경주시 신평동에 소재한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10년 전국지체

장애인지도자 신년인사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전국 400여명의 지장협 장애인지도자 및 산하시설 임직원들과 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를 비롯한 내빈들로 성황을 이룬 이번 행사에는 경인(庚寅)년 새해를 맞아 ‘2010년 지장협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장애인지도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행사 첫째 날, 김정록 중앙회장은 특

강을 통해 ‘장애인복지연구소’ 설치운영, 새로운 ‘수익사업모델’ 개발, ‘2010년 지방선거 장애인 매니페스토’ 등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지장협 新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삭감된 ‘장애연금 예산’과 시한부로 전락해버린 ‘LPG 지원제도’를 예로 들어 “2009년 한 해 동안 ‘장애연금의 현실화’와 ‘LPG 지원 유지’를 위해 우리가 왜 그 토록 절규했는지 이 정부는 관심조차 없다”고 비판하며 “결국

우리는 ‘우리의 힘’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이 아닌 유권자로서의 소중한 표를 행사해 480만 장애인의 힘을 보여주자”고 당부하며 “지방선거에서 장애인당사자 및 친(親) 장애인사들이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2~3면에 계속>

2010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 신년인사회 이모저모



<1면에 이어>

김정록 중앙회장의 특강에 이어 김세욱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명사특강',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장재권 회장의 '주제발표' 및 중앙회,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2010년 사업설명 및 기관 업무보고' 등이 마련됐고, 둘째 날(29일)에는 폐회식과 포스코 견학이 실시됐다.

특히 첫째 날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는 '장애인 복지발전' 및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실현시

키기 위한 지장협의 첫 번째 행동이자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매니페스토 추진단 발대식'이 열려 '결의문 낭독' 및 '희망의 종이비행기(장애인정책의제) 날리기' 등의 퍼포먼스가 열렸다.

지장협의 전국 16개 시·도 협회장들은 이날 발대식을 통해 해당 시·도의 '매니페스토 추진단장'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향후 6월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정치참여 확대' 및 '장애인 정책 공약화'라는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게 된다.

결 의 문

금번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역장애인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 수단이며, 지역 장애인복지발전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바, '매니페스토 추진단'을 결성하여 장애인정체세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시급적으로 삼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장애인의 욕구와 지역적 이슈들을 '공약화'해 우리의 요구를 쟁취한다.

하나, 장애인당사자의 정치참여를 통해 '장애인정치 세력화'를 달성한다.

하나,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환경'을 개선한다.

인사 동정

• 정년퇴임 홍태석 복지사업국장
• 임 용 김종성 복지사업부장

2010년 지장협 新 프로젝트

① 장애인복지정책연구소 설립

지장협의 체질개선을 위해 '장애인복지정책연구소'를 설립하고 장애인복지 발전방향과 우리협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기적인 '복지세미나'를 개최하여 '정책집단'으로 탈바꿈 한다.

※장애인복지정책연구소의 역할
①장애인복지 발전방향 및 협회의 '발전방향' 연구
②조직의 대중성확보를 위한 '이슈' 개발
-장애인복지의 이슈를 개발하고 선점해 나가면서 군소단체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

② 직영사업의 개발 및 시·도별 특성에 맞는 사업장 건립

장애인단체에 대한 정부의 보조나 지원은 운영비나 인건비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협회의 재정자립은 조직의 생사와도 같다.

장애인 자활 및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개발과 수익사업장 설치운영, 중앙회 '직영사업부' 운영과 16개 시·도 협회에 '표준사업장' 설립, 자립작업장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의 토대를 마련하

고, 지역별 특화사업 및 특색사업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 한다.

③ 계획성 있고 협회운영이 예측가능하게 행정업무를 변화

행정업무에 대한 중앙회와 지역 협회간의 간극을 좁히고, 각종 자료를 전산화 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표준화' 및 '매뉴얼화' 한다.

④ 개혁을 통한 역동적인 협회 건설

조직운영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협회 조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조직운영의 민주적 운영을 통한 대중성확보로 조직력을 강화하고, 사회와 국가에 대한 기여도를 확대하여 '품위' 있는 지장협으로 변화한다.
ex) 아이티 난민 돕기 모금운동

⑤ 변하지 않는 장애인의 삶...해답은 '매니페스토'

오는 6월 실시될 예정인 지방선거는 우리의 고질적인 선거문화를 바꾸는 데 매우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국가 관점에서 보면 가장 말단의 행정조직이지만, 지역 주민 관점에서 보면 가장 가까운 행정기구이고, 특히 기초지방정부야말로 주민들이 풀뿌리 생활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장(場)이다.

협회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매니페스토에 입각한 공약을 내어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평가해 발표함으로써 당락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선거후 공약을 실천하는 지를 감시하며, 또한 장애인당사자의 지방의회 입성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다.

⑥ 편의시설지원센터의 양·질적 발전 도모

전국 시·군 편의센터의 설치를 독려하고(현재 166개 센터 운영) 전문가격증제도 실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 사전점검조례제정 확대, 법정기관화 등을 추진해 편의시설지원센터의 양·질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09호 2010년 2월 15일

회 장 · 발행인 / 김정록 편집장 / 이현일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지원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서울라05825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hambaknun30@nate.com

대표전화:(02)796-4280 FAX:(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발행인 칼럼

“행복한 삶이란?”

(아이티의 아픔 우리가 함께 나눕시다)

‘행복한 삶’은 내 주위 사람들과 같이 웃고 슬픔을 나누는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소유 즉, 부(富)를 행복의 원천으로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나눔의 실천’입니다.

성해지며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애인동지 여러분

카리브해 연안에 위치한 ‘아이티’라는 조그만 나라가 지금 지진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1월 12일 발생한 진도 7.0 규모의 지진으로 10만 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집, 학교, 병원, 도로 등이 붕괴되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절단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현재 2천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의료조치만 받으면 완치될 수 있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던 사람도 의약품과 의료진의 부족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손과 발을 절단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손과 다리를 잃어 장애인이 된 아이티 국민들의 눈물을 우리가 닦아주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협회에서는 위기에 처해 있는 아이티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많은 회원들이 모금운동에 참여했고,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모아진 성금이 1,500만원을 넘었다는 고무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랑은 아이티 장애인들이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모쪼록 이 글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지진의 참사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티’의 국민들을 떠올리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8일

중앙회장 김정록

존경하는 장애인동지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복한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일까요?

흔히들 세상 사람들은 삶의 행복이 물질적인 풍요로움 즉, ‘소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위해 숨이 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집을 사고 싶어서, 좀 더 큰 차를 타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성공했다는 평판을 듣기 위해 일생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과연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이 소유하더라도 그 소유만으로는 만족과 행복이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를 위해 단 한번 밖에 없는 일생을 투자한다면 결국 그 생애는 낭비일 뿐이며 후회와 허무함만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나눔은 쓰고 남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나눈 다음 줄여 쓰는 것입니다. 나눔은 작은 것으로 시작되지만 반드시 풍성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깊은 샘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맑은 물이 샘 솟듯이 우리의 삶도 씬 없이 나눔의 삶을 실천할 때 더 아름답고 풍

‘중증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떡 나누기’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회장 김창환, 이하 대구협회)는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지역 내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된 이웃과 함께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떡국)떡 나누기’ 행사를 지난 10일(수) 14시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에서 개최했다.

재가중증장애인 및 협회, 지회 임직원 등 4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룬 이날의 행사는 지난 2009년 처음 실시되었고, 행사의 호응도가 높아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자 올해도 실시되었다.

특히 대구협회 김창환 회장은 떡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약 500만원 전액을 자비로 충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장애인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김창환 대구광역시지체장애



지난 10일 열린 ‘중증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떡국)떡 나누기’ 행사에서 대구협회 김창환 회장 and 지회장들이 중증장애인들에게 전달할 ‘사랑의 떡’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협회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직접 떡을 전달하고 난 후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야 할 설날, 외롭게 보내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은데, 특히 올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경기불황으로 온정의 손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더욱 추운겨울이 될 것 같다”고 예상하며 “오늘 전달되는 떡이 중증장애인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대구협회는 지난해 10월 개최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통해 10,000포기의 김치와 쌀 120포를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전달하기도 하는 등, 지역 내 소외된 중증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진정한 복지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올해의 포부를 밝힌 바 있다.



「2010년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 시·군 기술지원센터 워크숍」에서 임명장을 받은 9명의 신규직원이 김정록 중앙지원센터장 및 표창대 경기지원센터장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편의시설 시·군 센터 워크숍」 실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경기지원센터(센터장 표창대, 이하 경기센터)는 지난 1월 18일(월)부터 21일(목)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수안보 한화리조트에서 「2010년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 시·군 기술지원센터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기센터를 비롯한 29개 시·군센터(가평군, 동두천시 제외) 소속 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편의시설 전문 강좌 뿐 아니라 장애인복지 및 조직 전반에 관한 교양강좌가 집중적으로 열렸다.

18일(월) 워크숍 개회식에서는 광주, 김포, 의왕, 하남 등 2010년에 새로 설치된 센터의 직원을 포함한 신규직원 9명에 대한 임명장 및 임용장 전달식이 실시됐다.

이날 김정록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장은 행사에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센터 발전 방향’이란 주제의 특강을 했다.

이튿날(19일)에는 ‘장애인편의시설과 인증제도’, ‘편의시설의 선진사례’ 등의 강의를 마쳤고, 20일(수)에는 ‘편의시설 현장교육’ 등이 실시되었으며, 21일(목) 실시된 ‘현장점검 결과물 발표’를 끝으로 3박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용인시장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사회적 기업’ 인증

용인지역 첫 인증... ‘쿠키트리’ 로 좋은 평가 받아



용인시장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이 용인지역의 첫 번째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사진- ‘사회적 기업’ 인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쿠키트리’)

용인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용인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성기, 이하 용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용인시장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대표 정성기, 이하 용인작업장)이 지난 1월 21일(목)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지난 2009년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 왔던 용인작업장은 이로써 지역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모두 갖추게 된 작업장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용인작업장은 용인시민이 사용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순 우리밀로 만든 쿠키 7종의 품목을 생산하는 ‘쿠키트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지난해 출범한 ‘쿠키트리’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 복지, 수익 전액의 재분배·재투자, 합리적인 예산관리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사회적 기업 운영의 모범 모델로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지난 2009년 6월 예비사

회적일자리 인력 10명을 지원받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노동부의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용인지역에서는 최초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게 되었다.

인증 준비를 맡아 왔던 용인복지관의 이선덕 직업지원팀장은 “사회적 기업이 되었을 때 향후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도 중요하지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프로보노(재능기부)’를 통한 작업장의 발전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인증의도를 밝혔다.

한편 용인작업장 내 쿠키트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 1월 오픈(www.cookie-tree.or.kr)을 앞두고 활발하게 준비 중에 있으며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장조사 등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이젠 쿠키를 먹으면 맛과 함께 ‘사회적 가치’까지 덩으로 따라오게 되는 즐겁고 맛있는 과자를 사회적 기업이 된 용인시장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쿠키트리에서는 오늘도 장애인과 함께 바쁘게 구워내고 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



원자력발전기술원 김영재 노조본부위원장 여직원모임 한소리회 성정숙 회장이 윤석연 관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지난 1월 21일(목) 오후 2시,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석연, 이하 유성복지관)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발전기술원(회장 이주상)의 후원금 전달식이 개최됐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총 이백팔십오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12월 30일 원자력발전기술원(노조본부위원장 김영재) 본부와 여직원모임인 한소리회(회장 성정숙)의 주관으로 진행된 ‘기술원 알뜰 나눔 장터’에서의 판매수

익으로 조성된 것이다.

후원금은 중증장애인의 ‘주말보호 사업’을 위해 쓰여질 예정인데, 주말보호 사업은 주말동안 중증장애인 가족의 부양부담을 감소시켜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중증장애인의 자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자력발전기술원 김영재 노조본부위원장은 후원금을 전달하며 “장애인들을 향한 원자력발전기술원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활동보조인 자체교육 및 간담회’ 실시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박선하 관장이 ‘활동보조인 자체교육 및 간담회’에 참석한 활동보조인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선하)은 지난 11일(목) 복지관 강당에서 활동보조인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활동보조인 자체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총 27명의 활동보조인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활동보조인 서비스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불편사항 등을 조정하고 상호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후 3시부터 진행된 행사는

‘2010년 활동보조 지원 사업 지침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활동보조 사업진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상호 정보교환 및 친교의 시간이 차례로 열렸다.

박선하 관장은 “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활동보조인들의 수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며 “오늘의 자리를 통해 활동보조인의 역량이 강화되고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깨끗한 치아, 건강한 영천”

영천복지관, 영천시보건소 협약 ‘구강보건실’ 개소



지난 1월 20일 개소한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구강보건실’에서 한 장애인이 진료를 받고 있다.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영천시보건소 협약 구강보건실’이 지난 1월 20일(수)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제근, 이하 영천복지관)에서 영천시보건소장, 치과 의사 회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깨끗한 치아, 건강한 영천”의

초석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에 개소한 구강보건실은 민간의료기관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구강진료 등 각종 구강보건사업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장애인 가족 및 장애인복지관계자를 모시고 구강보건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진료실의 규모는 19.8㎡로 진료실에는 치과 유니트 등의 의료장비, 치과 진료기구, 재료 57종 구비, 홍보 및 교육자료 등이 배치되어 장애인들의 구강진료 및 예방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진료는 영천시치과의사회 진료 협조를 통해 치과 의사 1명, 치과위생사 2명이 주 1회 출장 구강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천복지관 이제근 관장은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치과가 거의 없는데 접근이 용이한 복지관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구강보건실 개소를 통해 지역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구강관리 분위기 조성으로 ‘건강한 영천’이 실현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기초장애연금법안’ 2월 국회 내 처리될까?

기초장애연금대상자 확대, 기초급여 단계적 인상방안 등이 담긴 기초장애연금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2월 임시국회내 처리에 변수로 작용한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정부·박은수·윤석용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사해 새롭게 만든 ‘기초장애연금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수정안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은 1·2급 및 3급 중 일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던 수급요건을 1·2급 및 3급 이하 장애인으로 명시해 대상자 확대 가능성 일부 열어놓았고 소득심사기준을 수급자 본인과 그 배우자의 것으로 한정하는 등 정부안에서 다소 완화된 조항들을 담고 있다. 또한 2028년까지 기초장애연금 기본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완화된 조항에 대한 이견을 복지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연금제정을위한공동투쟁단의 한 관계자는 “복지위를 통과한 때부터 기재부가 상임위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이견, 변수로 작용해 어려울 수도
“대상자 확대, 단계적 인상 등 반드시 지켜야”**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등을 담은 ‘기초장애연금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2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변수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2009년 11월 2일 여의도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장애인연금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알고 있다”며 “(이의제기가) 공식적인 통로나 가시화된다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기재부가) 법안 제명부터 대상자를 확대 등에서 완곡하게 받아들

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여러 차례 전해들었다”며 “부처간 이견이 있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된 경우가 별로 없다.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 수정안에서 후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기초장애연금도입 TF팀의 한 실무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하위법령 제정에 최소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7월 도입은 어렵게 된다”며 “법사위에서 부처 의견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견이 있다면 그것은 부처 간에 해결할 사안이다. 2월 도입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기초장애연금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려면 16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상정돼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기초장애연금법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 처리법안 목록에 포함시켰고, 한나라당도 기초장애연금법안에 대해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다.

〈출처-에이블뉴스〉

시각장애 이익섭 교수 별세

국내 첫 시각장애인 교수, 장애인 인권 향상에 기여

국내 첫 시각장애인 교수로 장애인 권익향상에 힘썼던 이익섭 전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이 지난 2일(화) 오후 지병인 간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58세.

초등학교 4학년 때 앓은 열병으로 시력을 잃은 고인은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피츠버그대 석사를 거쳐 시카고



지난 2일 지병으로 별세한 이익섭 교수

대에서 사회복지정책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이 교수는 1993년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임용되며 국내 시각장애인 중 ‘최초의 교수’가 됐다.

이후 학과장, 사회복지연구소장 등

을 거쳐 사회복지대학장을 맡아 후학양성에 힘써왔고 한국장애인연맹(DPI) 회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07년에 160여개국이 참여한 ‘세계장애인한국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국내·외적인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이런 공로로 서울정책인대

상과 파라다이스상(사회복지부)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시각장애인이지만 피아노 연주도 수준급이라는 평을 받았던 이 교수의 유족으로는 부인 김종애씨와 딸 밀과 리나씨가 있다.

‘LPG 가격담합’ 장애인 집단소송 추진

손해배상 청구액 1인당 100만원...3월 20일까지 모집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채종걸, 이하 장총련)가 지난해 LPG가격담합을 통해 수천억의 부당이익을 취한 국내 LPG공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장애인당사자 원고단을 모집한다.

E1, 에스케이가스, 에스케이에너지, 지에스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공급업체는 6년간에 걸친 가격담합으로 수천억원 대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던 에스케이가스와 에스케이에너지가 현행법에 따른 ‘리니언시(leniency, 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적용받아 과징금의 100%, 50%를 각각 면제받아 장애인계의 분노를 샀다.

이에 대해 장애인계는 이들 공급사의 담합행위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계층이 장애인이라며 과징금을 당사자들에게 돌려

주기 위해 손해배상을 비롯한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집단소송 개인별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00만원이며 실제 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분된다.

원고단 참여는 LPG차량 소유 장애인 당사자로 모집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며,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총련 홈페이지(www.kofod.or.kr)에서 위임장을 내려 받아 작성해 전자우편(kofod@kofod.or.kr)로 보내면 된다.

참여자 2만원의 개인별 소송분담금을 부담해야하고 복지카드 사본과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각 1부를 스캔해 메일에 첨부하거나 팩스로 송부해야 한다.

장총련은 “이번 소송을 통해 장애인을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거대기업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부당함을 알리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천연덕스러운 무시와 뻔뻔함을 응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출처-에이블뉴스〉

서울시, 예비 사회적 기업 110개 선정

2년간 최대 3억원 지원, 전문가 그룹이 기업 전담해 컨설팅 제공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 110곳을 선정해 사회적 기업 육성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지난 2일(화)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1달간 서울형 사회적 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284개 기업이 응모, 이 중 110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당초 선정 목표였던 76개 기업을 약 1.5배 초과한 수치다.

선정된 기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58개, 문화·교육분야 28개, 보건·보육분야 18개, 환경·건설·교통 등 기타분야 6개 등 총 110개 등이다.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이달부터 2년간 최대 3억원의 재정이 지원되며 인

력 지원도 받게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장애인과 고령자·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고용해 100% 국산 쌀로 빵과 케이크를 판매하는 ‘쥬쥬은세상 베이커리’, 문화생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공연과 자선음악회 등을 실시하는 ‘코리안 재즈오케스트라’, 성매매를 그만 둔 여성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동근밥상 큰언니네 국수전문점’ 등의 다양한 기업들이 선정됐다.

또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과후 교실 강사 파견기업인 ‘We♡SSam’과 초등학교 박물관 체험학습을 지원하는 ‘놀자아 놀이교육연구소’ 등도 뽑혔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기업당 평균 10명의 직원에 대해 1인당 93만2000원(사업주 사회보험료 8.5% 포함)의 임금 지원이 이뤄지며 기업이 채용한 전문가 1인에 대해서는 직원임금과는 별도로 15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는다.

또한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원 상담센터(8개소)의 법률·회계, 홍보·마케팅, 경영 등 3개 분야 전문 컨설턴트들로부터 경영조직 관리 및 회계·노무·법률 등 기업 운영에 대한 지원을 최대 2년까지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최창도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장은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올해 서울시 일자리 대책의 핵심이자 복지정책과 결합한 서울형 신고용정책”이라며 “그동안 사회적 기업이 필요한 영역에 희망근로 등 공공근로사업을 통



사회적 기업이자 봉사단체인 ‘아름다운 가게’

해 단기 임시적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기업’이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반의 중간형태

로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아름다운가게, 노리단, 다솜이재단, 동천모자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현재 서울 지역에는 240개 사회적기업에 약 67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법원 “장애치료가 보험무효 사유 안돼”



법원은 장애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사진-서울북부 지방법원)

언어장애 확정 진단이 나지 않았는데 보험 계약 체결 전 장애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월 25일(월) 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 허일승 부장판사는 H보험사가 보험가입자 배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장애 진단 시점은 의사가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시점”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2005년 11월 당시 4살이던 딸 A양을 피보험자로 H보험사와 ‘보험기간 상해나 질병으로 시각·청각·언어 장애인’이 되면 1천만 원의 위로금을 받는다’는 내용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양이 2008년 1월 서울모 대학병원에서 언어장애로 인

한 1급 장애 확진을 받아 배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계약 체결 전 이미 발달성 언어장애가 있었으므로 보험계약은 무효’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당시 A양은 2005년 4월 병원 진료 결과 경도의 정신지체 진단을 받고서 8월부터 발달성 언어장애 및 정신발육지체로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아온 상태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질병으로 말미암은 장애진단의 시점은 발병 시점이 아니라 의사가 질병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장애상태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시점이다.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 장애진단을 받아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체결 당시 A양이 ‘교육 가능군’으로 분류돼 교육을 통한 상당 수준의 적응을 기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양의 언어장애가 선천적 장애 탓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에이블뉴스〉

“안태성 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잘못”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학교 쪽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잘못됐다”는 재심의 결정 통보를 받은 안태성 교수(오른쪽)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청각장애를 가진 안태성 교수를 해직했던 청강문화산업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다.

안태성교수 측은 지난 19일(화)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학교 쪽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잘못됐다’는 재심의 결정 통보를 받았다.

안 교수의 아내 이재순 씨는 “이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힘이었다”며 “학교 측의 반응을 지켜봐야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장애인 차별에 맞설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에이블뉴스〉

지방선거를 ‘매니페스토’의 場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지장협의 ‘두 번째 프로젝트’

‘2010년 장애인 의회정치 아카데미’



오는 6월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 매니페스토’를 실현하기 위한 지장협의 두 번째 프로젝트, ‘2010년 장애인 의회정치 아카데미’가 2월 9일(화)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렸다.



김정록 중앙회장이 6월 지방선거를 ‘장애인매니페스토’의 장으로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



‘2010년 장애인 의회정치 아카데미’에서 백두성 서울선관위 지도 1과장이 특강을 하고 있다.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 보고, 몸부림을 쳐봐도 바뀌지 않는 ‘장애인의 삶’. 해답은 없는 것일까? 나는 그 해답을 장애인의 정치세력화 즉 ‘매니페스토’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2010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 신년 인사회」 김정록 중앙회장 특강 중—

오는 6월 2월(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어느 후보가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후보인지 냉정하게 꼼꼼히 살펴보고 참 일꾼을 뽑아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는 지방선거를 대비해 ‘2010년 지장협 新 프로젝트’의

하나로 ‘2010년 지방선거 장애인 매니페스토’를 선정하여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 전국 480만 장애인에게 선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월 28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10년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 신년인사회』에서는 ‘매니페스토 추진단’을 신설한 바 있다.

지난 2월 9일(화) 오전 9시 30분, 지장협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두 번째 프로젝트인 ‘2010년 장애인 의회정치 아카데미’를 영등포아트홀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재)와 공동 개최했다.

전국 150여명의 지체장애인지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의회정치 아카데미는 오는 6월 2(수)일 실시될 예정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출마

를 준비하는 지체장애인지도자들에게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장애인당사자의 ‘지방의회 입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비 출마자에게는 해당 지역 장애인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매니페스토’에 입각한 지방선거를 만드는 중책이 부여됐다.

강사는 백두성 서울선관위 지도1과장, 이용섭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최요한 정치컨설턴트가 참여하여 ‘선거운동 관련 법규 및 사례’, ‘선거운동과 매니페스토’, ‘효과적인 선거캠페인 기법’ 등의 강의를 실시됐다.

특히 개정된 정치관계법 안내, 입후보 준비과정, 선거운동과 관련한 법규 및 사례, 효과적인 선거홍보물 작성 및 선거 캠페인 기법 등 선거현장중심의 강의가

사례위주로 진행되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김정록 중앙회장은 “오늘의 의회정치 아카데미가 지방선거의 출마를 준비하는 전국의 장애인지도자들에게 ‘정치등용문(政治登龍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하며 “장애인당사자의 지방의회 입성을 위해 합법적인 범위 내의 모든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장애인지도자들에게는 “해당 지역의 지방선거가 ‘장애인 매니페스토’를 실현하는 장(場)을 만드는 중책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하며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약을 내어줄 것을 요구하고, 평가 후 발표하여 당락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선거 후 공약을 실천하는지를 감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용섭 선거연수원 전임교수가 ‘입후보 준비과정’ 및 ‘선거관련법규’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최요한 정치컨설턴트가 ‘효과적인 선거홍보 및 캠페인’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한국의 선거문화 혁신과정

(매니페스토 발전 과정)

우리나라의 선거과정에서 정책선거로의 전환은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전개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운동’으로 비롯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와 학회 및 언론의 정책선거로의 전환 노력을 토대로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정책공약화하는 운동이 대단히 혁명적으로 전개되었다.

시민단체로는 5·31 매니페스토추진운동본부가 운동의 전개 및 홍보 및 교육을 담당하였고, 한국정책학회는 정책공약의 작성에 관한 가이드 및 비교평가의 틀을 고안하여 후보자 및 유권자들이 용이하게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주요 신문사들은 이에 대한 주요 기사 및 정보들을 제고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각각 참 공약과 헛공약을 가려내어 유권자들의 후보자선택을 도왔다. 즉,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운동은 유권자에게 참 공약을 제시할 것을 추구하였으며 삶과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고 현실성 낮은 막개발·헛공약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철회를 축구하는 운동을 전개시키며 선거의 중심을 종래의 연고주의에서 정책공약의 개발로 이동시켰다.

이러한 공약개발 및 갖춘 공약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준거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운동이 전개되기 이전, 한국의 선거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로는 낙천·낙선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이 있었는데, 이러한 시민운동과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운동은 확연히 구분된다.

지난 2000년 전개한 낙천·낙선 운동, 정보공개운동, 그리고 2004년에 전개한 낙선운동과 당선운동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운동은 과거의 부정적인 캠페인과는 달리 좋은 정책지향을 추구한다. 이런 견지에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운동은 압박과 강제보다는 협력과 합의를 중시하는 사회적 선거문화 혁신운동으로 평가된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 있어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운동은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을 정책선거로 견인함과 동시에 정치의 국민

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며, 유권자의 측면에서는 선택의 기준이 종래와 같이 금권, 지역, 연고주의 등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두고 선택을 하도록 함으로써 선거문화를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선거지향의 변화노력은 2007년의 대통령선거와 2008년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지속되었다. 우리나라의 ‘선거문화 혁신과정’은 아래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전개되어 왔다.

매니페스토운동이 정책선거로의 선거

문화혁신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그 효용성을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그동안 우리 선거가 지연, 혈연, 학연, 그리고 금권과 같은 연(緣)에 의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한국정치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 매니페스토운동은 정책선거로의 정치선진화에 대한 갈망을 현실화하였다.

둘째, 선거문화의 개선과정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국의 선거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낙선 또는 당선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캠프)의 에너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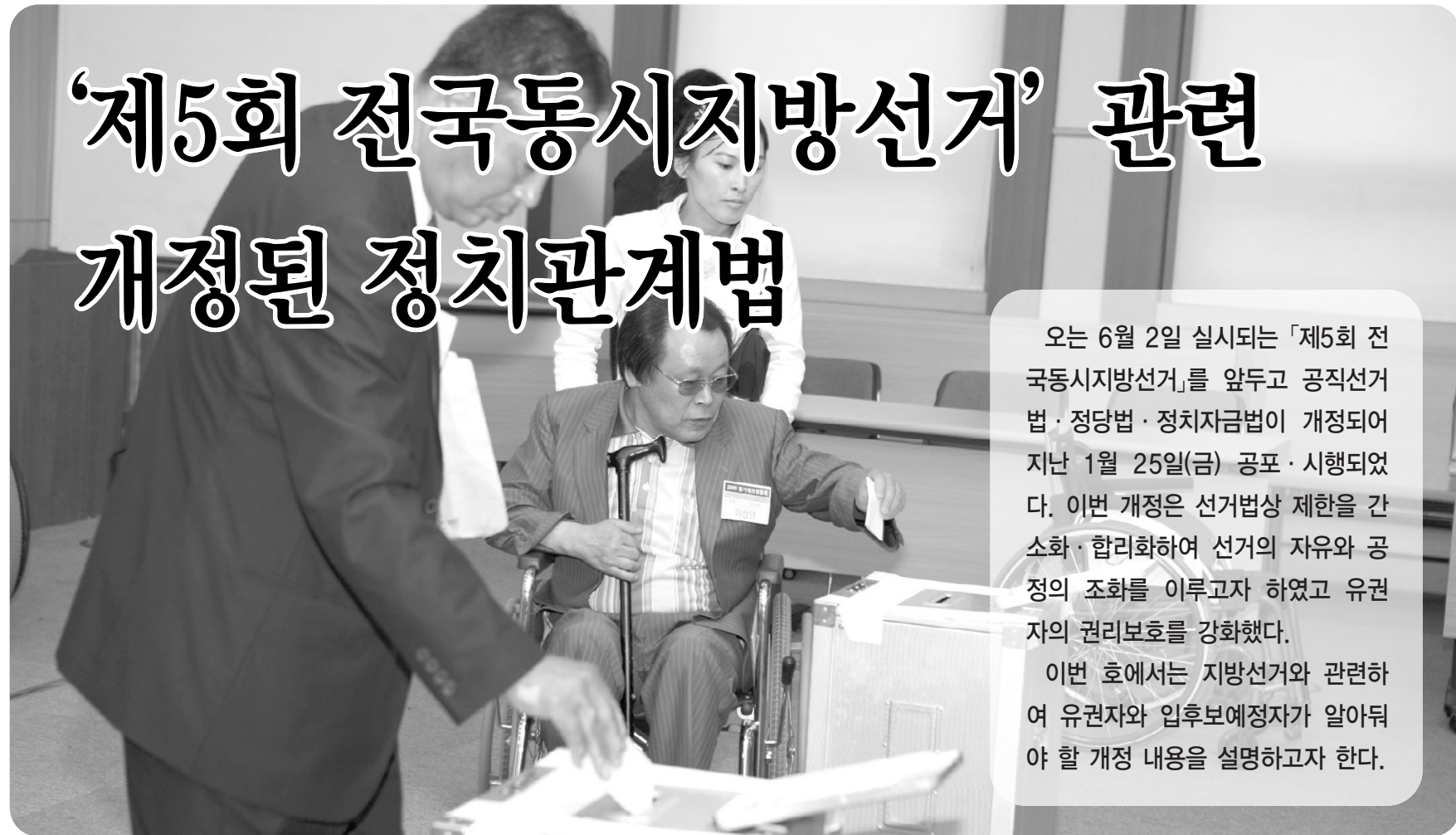
정책의 입안과 구상 및 검증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직관리에 소홀하게 되었고 이는 부정선거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례를 현격히 줄이는 데 공헌하였다.

그러나 지난 2004년 총선거 시 전개했던 낙선운동은 과거처럼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런 관점에서 매니페스토운동은 네거티브 운동보다는 좋은 정책의 개발과 같은 포지티브 운동에 대한 유권자의 갈망, 시민운동의 새로운 모색의 일환으로 대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선거문화 혁신과정(매니페스토 과정)

구 분	내 용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	-당시 금권, 관권 등 각종 부정으로 얼룩진 선거행태에 대한 자성과 다짐에서 출발
1994년 제정부터 2000년 개정 전	-선거문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나 선거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참여를 이끄는 내용은 없이 선거구조정, 의원정수의 조정, 고비용정치구조 개혁 등 선거문화 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개정 작업에 머뭇
2000년 2월16일 개정	-우리 선거문화 또는 정치문화에서 시민단체의 참여가 본격화되고 명백하게 자리 잡음 -후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명명(법 제49조 제4항, 제10항 및 제11항),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은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후보자를 초청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음(법 제58조 및 제87조). -시민단체들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제공 -후보자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가 공개(시민단체 주도의 선거운동이 가능)· 시민단체들의 선거참여는 과거의 행적을 기준으로 한 의사표명으로 이들이 제기한 정책(공약)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음
2005년 8월4일 공직선거법으로의 개정	-정책선거를 구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 -유권자의 정치(선거)참여 유도 의의(선거권 연령의 하향,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비례대표선거에 있어 여성후보자 추천 강조 등) ·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제87조의 내용이 다소 변형되었지만 그대로 존치될 뿐 아니라 아직도 상당한 시민단체 참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2006년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운동의 전개	-이 운동은 영국과 일본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선거공약따져보기로 지난 2000년과 2004년 시민단체들의 정치참여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인물평가를 통한 낙선·낙선운동에 초점을 둔 것에서 한층 성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매니페스토 운동은 후보자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를 통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낙선운동이 적어도 개인이 아닌 공약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선한 정치문화의 진보로 평가됨.
2006년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운동 전개 이후	-2007년의 대통령선거와 2008년의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참공약을 중시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운동이 펼쳐짐 -법제화의 전개와 자발적 참여로의 전환이 전개됨 -비교평가결과 공표제한조항 법제화로 검증부재됨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지수 개발 등의 선거데이터 전문화가 추진됨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개정된 정치관계법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지난 1월 25일(금) 공포·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은 선거비용 상 제한을 간소화·합리화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고 유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이번 호에서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가 알아둬야 할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변경·신설된 주요선거일정>

- 예비후보자 등록
 -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 2. 2.부터
 -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 구청장·시장 선거 : 2. 19.부터
 - 군의원, 군수 선거 : 3. 21.부터
- 후보자 등록 : 5. 13. - 5. 14.
- 여론조사 사전신고 시행 : 2. 15.부터
- 지자체장 광고출연 상시금지 시행 : 2. 25.부터

<변경사항>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

① 도시지역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이 늘어난다.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입후보예정자를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회의원 및 장 선거’에서의 예비후보자 등록시기가 종전보다 앞당겨져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2. 19.)부터 등록할 수 있다. ▷군(郡)의 지역구회의원 및 장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3. 21.)부터 등록할 수 있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선거일전 120일(2. 2.)부터 등록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된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성년자나 선거권이 없는 자는 금지된다. -예비후보자를 위해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된다. 후보자도 아래와 같다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 제외)
- 예비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그와 동행하는 사람 중 지정하는 각 1인
- ▷‘장애인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

구 분	예비후보자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
공무원	○	×	○	○
외국인	○	×	○	×

조하기 위하여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다.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되지 않고, 그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③ 선거운동방법이 확대된다.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등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되어, 명함을 배부하지 않고도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전화로 직접 통화하여 지지를 호소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를 발송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모두 합산하여 5회 이내이므로 발송횟수에 주의해야 한다.

④ 예비후보자의 난립이 어려워진다. ▷후보자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탁금을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경선의 낙선자’인 경우에만 기탁금이 반환된다.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본 첨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않는다.

■ 사직기한 및 후보자등록 시기 축소

①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입후보예정자의 사직기한이 빨라진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종전보다 30일 빨라진 선거일전 90일(3. 4.)까지 사직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자체 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지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사직대상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가 추가되었으며, 정부투자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개정되었다.

② 후보자등록이 앞당겨진다. ▷임기만료에 의한 지자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5. 13. - 5. 14.)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은 변동이 없어 5. 20.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5.13~5.19)는 후보자의 신분으로 새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없고 이들의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다만, 위 기간 동안 후보자

의 신분은 예비후보자를 겸한 것으로 보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① 선거사무관계자 수가 늘어나고 제한이 완화된다.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는 기존에 비해 ‘5를 더한 수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더 둘 수 있다. 선거연락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만큼 선거사무소에 더 둘 수 있다.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사무원수가 종전 5인 이내에서 ‘8인 이내’로 늘었다. ▷선거사무관계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대신 선관위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면 된다.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는 인원수의 제한이 폐지되어 선관위에 신고하는 선거사무관계자는 모두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고, 일정 구역(금액) 내의 윗옷, 표찰, 수기(手旗),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사회자와 연설원 신고규정이 삭제되어, 후보자등(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신고 없이 연설·대담이 가능하다.

② 선거운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정당선거사무소·당사의 간판·현판·현수막 및 선거대책기구와 후원회에 게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 제한이 폐지되었다. ▷시·도지사선거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각 5회 이내의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시 연설하는 모습 외에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정당명(정당 마크나 심볼 포함)·경력, 연설 요지 및 통계자료’의 방영이 허용된다.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시에도 연설하는 모습과 함께 ‘정당명(정당 마크나 심볼 포함, 연설 요지 및 통계자료’의 방영이 허용된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개사(改詞)하지 않은 음악’도 방송할 수 있다. ▷무소속후보자는 당원경력 표시 이외에도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자신을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사실’을 표방할 수 있다.

③ 각종 신고·제한이 축소·폐지된다. ▷모든 선거에서 선거기간 중에도 ‘선거와 무관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는 허용된다. ▷선거일 전 180일 이후에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된다. ▷당원집회 개최 시 상시 신고의무가 폐지되고 ‘선거일전 90일부터’ 신고하면 된다.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의 색도·규격 규정과 광고위치 및 광고계제신고 규정이 삭제되었다.

▷정당의 정강·정책의 홍보 등을 위한 신문광고의 광고위치 및 광고계제신고 규정이 폐지되었다. ▷인터넷광고의 사전신고제가 폐지되었다.

■ 선거의 공정과 유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① 선거의 공정을 위한 제도가 신설된다.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가 도입된다. -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이번 선거에는 법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2. 15.)부터 적용되고, 정당·연론사·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이 규정은 법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2. 25.)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당내경선운동’도 할 수 없다.

②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한 규정이 강화된다.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등록이 무효가 된다. 또한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선거공보의 둘째 면 이외의 면에 게재하거나, 그 둘째 면에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와 그 소명자료 외의 다른 내용 게재 시 접수하지 않는다.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고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예외적으로 우편발송을 허용하였다.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사람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된다. ▷후보자에 한하여 컴퓨터를 이용해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 이내로만’ 가능하다. 또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 전송할 때는 그의 전화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녹음기·녹화기 사용금지시간이 연장되어(오후 10시~오전 7시 → 오후 9시~오전 8시) 이른 아침 확성기 소리로 인한 생활의 불편이 줄어든다.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④ 투·개표가 보다 합리화된다.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후

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이 아니라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라 1-가, 1-나 등으로 투표용지의 게재 순위가 표시된다.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관위가 추첨하여 결정한다. ▷지방의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단독 출마할 경우 ‘무투표’로 당선인이 결정된다.

⑤ 선거범죄로 인한 불이익이 더욱 커진다. ▷당선자뿐만 아니라 ‘낙선자’도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또는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낙선자’도 당선자가 당선무효가 되어 치르는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이 외에도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임기 중에 그 직을 그만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자체장은 그 사직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선거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취임·임용될 수 없거나 퇴직되는 직에 ‘공무원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이 새로 포함된다.

⑥ 정당법과 정치자금법도 개정 ▷등록 및 변경등록대상 정당의 간부의 범위가 일치되도록 했고,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 산정기준을 완화했다.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선거비용제한액의 50%를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는 회원모집 또는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장 후보자 등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업적·공약 등과 같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장애인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정당은 이를 장애인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기타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내용 ▷정당은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군 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도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불법적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었던 50배 과태료가, 받은 금액이나 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원)로 조정된다. ▷투표의 비밀보호와 매표 행위의 방지를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담례현수막 게시는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에 한하여 허용된다. ▷지자체장의 금품제공행위를 기부행위로 통합하고, 기부행위 제한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여객시설 및 철도차량에

지난 2월 2일(화) 지체장애이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센터장 김정록) 홍현근 팀장과 박성오 과장은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신재영 사무관과 항공철도국 철도운영과 황우정 사무관 등과 함께 용산역과 도시철도차량, 일반철도차량, 고속철도차량을 점검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점검을 통해 여객시설 및 철도차량에 대한 이동 편의시설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교통약자의 맞는 설치기준 및 여객시설과 교통수단에 설치 가능한 항목별 설치기준을 제시하여 법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율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며, 실질적으로 2년째를 맞이하게 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의 활성화와 함께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림 1 장애인 안내표지의 사용방법〉



〈그림 2 잘못된 사용예〉

먼저, 점검기를 소개하기 전에 일명 '장애인마크'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장애인마크로 불리는 '휠체어 형태'의 심볼은 우리나라에서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KS A 0901 Series로 2004년에 제작하여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코드넘버는 1.1019이고 그 이름은 '장애인용(Disabled Access, DA)'이며 <그림 1>의 2. Disabled Access이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국제재활협회(RI)가 1969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된 RI총회에서 채택한 것으로 그 명칭은 <그림 1>의 2-1 'International Symbol of Accessibility(ISA)'이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시설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표시하는 세계공통심볼'임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DA'와 'ISA'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국제불명의 심볼들의 잘못된 사용<그림 2>은 그 원래의 의미인 "이용 가능한 건축물, 시설이 있다"라는 의미를 오해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를 혼란시키고 일반시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내지 이해를 저해시키게 될 수 있는 것이기에 그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용산역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상정하여 점검을 해보기로 했다. 동선은 일반인들이 철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똑같이 잡아서 용산역을 이용해 보기로 했다.

먼저, 용산역을 버스로 이용하여 버스정류장에 내렸다. 버스정류장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하기 어려울만큼 오토바이가 점거하여 누구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림 3 오토바이가 점거한 버스정류장〉

대한 이동편의시설의 현 주소



〈그림 4 잡겨 있는 출입문으로 유도된 점자블록〉

어렵게 좁은 보도를 빠져나와 시각장애인의 용산역 접근성을 알아보기 위해 입구로 유도된 점자블록을 따라 입구에 도착해 보니 그 앞에는 “고정문입니다. 옆문을 이용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만 있고 문은 잠겨 있었다.

할 수 없이 옆으로 돌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입구를 보니 여기서도 사고의 위험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출입문 앞에 30cm 이격하여 경고블록인 ‘점형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위험물에 대하여 경고를 감지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점형블록 없이 유도블록인 선형블록이 출입문을 그대로 통과하고 있었다.

또한 색깔이 없는 유리재질의 출입문에서는 부딪혀 유리가 깨지든지 아니면 이용자의 얼굴 또는 무릎이 상처를 입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었다.



〈그림 5 출입문을 통과하는 유도블록〉

힘겹게 출입구를 지나 매표소에서 승차권을 구입하여 KTX를 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승강장으로 내려갔다. 승강장에 내리려고 보니 엘리베이터 출입구에 횡방향으로 설치된 점자블록을 볼 수 있다. 이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도 불편하지만 시각장애인이 탑승을 위하여 출입구 앞에 대기하고 있을 경우에는 내



〈그림 6 엘리베이터 출입구에 설치된 점자블록〉

리는 사람과 부딪혀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점자블록은 오른쪽 호출버튼 바로 아래에 설치하도록 교통약자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이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상징하여 KTX, 무궁화열차, 도시철도차량을 차례로 이용해 보기로 했다.



〈그림 7 보관중인 KTX 이동형 경사로〉



〈그림 8 KTX에 설치된 경사로〉

먼저, KTX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휠체어 전용좌석이 있는 2호차로 이동했다. 2호차에는 수동휠체어 전용좌석 3개 이상 설치하고 전동휠체어 전용공간을 2곳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승강장에 비치되어 있는 이동형 간이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7〉 〈그림 8〉 기울기나 안전성을 문제삼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 우선, 탑승을 하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일반철도차량인 무궁화호를 승차해 보기로 했다. 무궁화호에는 경사도가 차량에 내장되어 있어서



〈그림 9 철도차량 내장형 경사로〉

안전성면에서 KTX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았다. 〈그림 9 철도차량 내장형 경사로〉

그리고 도시철도차량을 이용해 보기로 했다. 도시철도 차량 탑승과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승강장과 차량 간의 높낮이와 간격이 문제가 되었다. 높낮이는 승객의 탑승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 때문에 사실상 해결에 딜레마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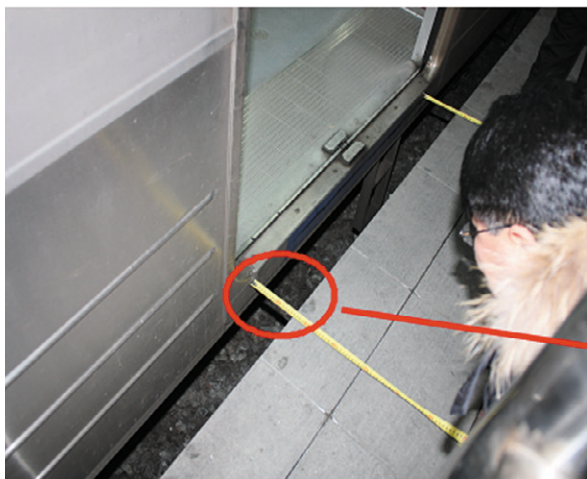
그리고 승강장과 차량 간의 간격은 교통약자법에서는 5cm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일 운행 중인 전동차가 정차했을 때 측정해 본 결과 기준보다 무려 3배 이상이나 넓은 16cm가 되었다. 〈그림 10〉 승강자와 차량간격 16cm〉 전동휠체어 앞바퀴의 지름과 같은 간격이다. 이는 앞바퀴가 임의의 장애물에 부딪혔을 경우에 안전을 위하여 회전을 하는데 회전하지 않고 직진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틈에 빠져버리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다.

장애인이 기차를 타고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한다는 것은 마음만큼 쉬운 일이 아님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이러한 열악한 이동편의시설을 예전처럼 눈만 뜨고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번 점검의 또 다른 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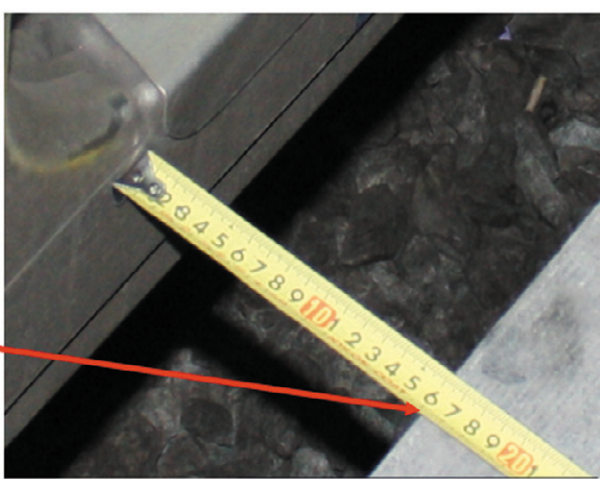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편의시설의 사용자 측면(Friendly-User)에서 기준과 정책을 꾸려 집행할 것이며, 사후 유지 관리에도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의 우리 주변 생활환경이 기대가 된다.

기사제공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홍현근 팀장



〈그림 10 승강장과 차량간격 16cm〉





정보

게시판

보건복지가족부, 가벼운 정신질환자 면허·자격취득 가능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 및 재활 기회 확대를 위해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4일(목) 입법예고했다.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는 증상이 심한 정신질환으로 상당기간 사회생활 및 특정업무 수행할 수 없다고 정신과전문의가 인정한 사람으로, 이에 해당하는 질환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기존에는 모든 정신질환자의 면허·자격취득이 어려웠지만,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이 도입되면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가벼운 정신질환자의 면허·자격 취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핵가족화 등 가족·친족관계의 변화 추세에 맞춰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인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 '자의입원'이 우선 고려되도록 했고,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에게 퇴원청구, 처우개선 청구 등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병원 내에 비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백은자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면허·자격 취득 제한에 대한 우려 없이 조기치료와 재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0년 8월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성부,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전국 20개소 지정·운영

여성부(장관 백희영)는 여성과 장애의 이중차별과 교육 및 사회진출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전국 20개소를 선정하여 2월 16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장애여성 지원에 대한 역량 있는 여성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인 복지관 등 총 40개 기관(단체)을 각 시·도에서

추천받아 여성부에서 최종 선정하였다.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열악한 사회 환경에 놓여있는 여성장애인에게 당당히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 확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하고, 장애여성 특성과 수요자 욕구에 부응한 기초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중·운영한다.

특히, 지역사회 자원기관 연계를 통해 직업훈련, 건강·의료, 법률 및 취업알선 등 장애여성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장애여성에게 특화된 전문복지기관으로서 장애여성의 욕구 파악을 통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위해 종사자도 여성장애인 지원 역량이 있는 역량 있는 장애여성으로 채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2월 중 종사자 채용 등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여건을 마련하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운영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3월중 전체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장애여성의 특성과 다양한 수요를 잘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의 장애여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복실 권익증진국장은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지정을 계기로, 앞으로 여성장애인이 사회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 확대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연차적으로 개소 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언론문의처 : 여성부 복지지원과 ☎02)2075-4682

인천, 장애인콜택시 24시간 운행

인천교통공사는 심야시간대 적당한 교통수단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증차하고 2월 8일부터 24시간 운행한다.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2월 8일부터 장애인 콜택시의 운행시간이 현행 오전 6시30분~밤 12시30분에

서 24시간 체제로 확대되며 3월에는 장애인 콜택시 20대를 증차해 현재 운영 중인 84대를 104대로 늘려 이용 대기시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장애인 콜택시의 24시간 운행으로 장애인들이 심야와 새벽 언제든지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애인 콜택시의 심야 이용 대상과 요금, 이용 방법은 주간과 동일하다.

인천교통공사는 앞으로 장애인 콜택시의 심야 이용추이를 고려해 운행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지역 장애인들의 숙원이던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운행체제의 도입으로 인천교통공사가 시민의 사랑을 받는 교통 전문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고 전망했다.

• 문의 : 인천교통공사 홍보팀 032)430-7377

경기도, 어린이 정신장애 무료 전수 검사 실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어린이 12만명 모두를 대상으로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전수 검사를 실시하는 등 어린이 정신건강 지키기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2월 3일(수) 밝혔다.

도는 이 사업에 경기도 정신보건사업비 총 150억원 중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차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전수 선별검사와 2차 정밀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3차 치료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주로 지원할 방침이다. 검사는 교육청과 지역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도는 이번 어린이 정신건강 증진사업명을 'Good-mind, Good-child(GG)'로 정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마음성장, 경기도가 책임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도는 "ADHD 추정 유병율은 도내 아동의 5.9%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성인기 우울증, 불안장애, 반사회적인격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아동기 주요 정신질환"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는 이 사업을 통해 ADHD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어린이들의 학습능력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왕따현상'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보건과 교육간의 서비스 연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ADHD 아동의 사후관리를 통해 차상위 계층에까지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번 사업과 관련, 4일 오후로 8년째를 맞은 경기도 정신보건사업 연찬회에 참석, 경기도민이 선진국 수준의 정신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주시, 저소득장애아 재활치료 지원 확대

충주시(시장 김호복)가 올해부터 저소득층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을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70%에서 10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 391만3천원인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돼 작년의 배인 월평균 171명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16만~22만원의 재활치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장애아동의 행동 발달을 위한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고 차상위 계층은 월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해당자는 월 4만원, 50~100%는 월 6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충주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기관은 호암동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칠금동 충북언어클리닉재활센터에서 언어, 청각능력, 미술, 음악, 심리 치료와 장애의 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은 가정은 부모 등 대리인의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사본을 가지고 매월 14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의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영유아는 의사 진단서도 필요하다.

• 문의 : 043)0050-5114

충남,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

충청남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장애학생들의 졸업 후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장애학생의 진로와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특수학급이 3학급 이상 설치된 전문계고를 대상으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공모, 운영한다. 또한 직업교육 전담 부장교사를 배치하고 사업제 발굴, 취업 알선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스페셜 코디네이터’를 전담인력으로 배치한다.

특히 특수학교에 전공과 5학급을 증설하고, 장애 유형·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맞춤형 프로그램의 경우 직업능력 평가를 통해 중증장애학생에게는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자립생활훈련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여기에 경도장애학생에게는 보호고용, 지원고용, 일반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특수학교에는 공모를 거쳐 학교기업 및 일반사업장과 유사한 형태로 직업교육 환경을 조성,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기업형 직업훈련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직업교육과정 유연성 확대, 지역별 진

로·직업교육연구회 활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진로·직업교육지원팀’ 구성, 지역 유관기관 협력 체제 구축 등에 나선다.

• 문의 : 042)580-7114

전북 장수군,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 실시

전북 장수군이 생활에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2010년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의 1~6급 등록 장애인이며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인,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와 중복된 가구, 고령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에 우선된다.

단,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금융기관 등의 주택개조 비용 융자 추천을 받아 개조비 지원을 받은 가구, 후원금 등으로 개보수 및 개조비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제외된다.

1가구당 최대 380만원이 지원되며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체형에 맞게 편의시설이 개보수 된다.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오는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사회복지과(063-350-2490)로 문의하면 된다.

포항, 복지 분야에 1천870억 투입

포항시(시장 박승호)가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포항시는 지난달 15일(금)올해 소외계층 지원 등의 복지 분야에 전년보다 19%가량 증가한 1천87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기초생계보장 지원에 492억원을 비롯해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 6억원, 차상위계층 양육할인 지원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각각 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사업에 196억원, 장애인 복지향상에 182억원, 맞벌이부부 등을 위한 보육사업 354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32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지원도 전국 가구 평균소득(4인기준 월 391만3천원)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해 대상자별로 소득기준에 따라 월 22만원의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복지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을 돕기위해 자활사업 750개를 비롯 노인일자리 5천개, 여성일자리 310개, 기타 복지사업 54개 등 복지분야에만 총 6천114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을 명품 복지도시로 만들기 위해 올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시설 대폭 확충

광주시가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 교통 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29개 사업에 130억 원을 들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설 확충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53곳에 64억 원,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11곳에 2억3천만 원, 저상버스 도입 10대에 18.5억 원, 장애인 콜택시 도입 10대에 14억 원 등이다.

시는 국토해양부의 실태조사 결과 낮은 평가를 받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설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또 월 1회 시 관련부서와 시내버스조합, 도시철도공사 등이 참여하는 개선대책 실무반을 운영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부진사유 분석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증진 추진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장애인 콜택시 보급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에 최근 2년 동안 40여개 사업에 372억 원을 투입했다.

이처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설을 확충한 결과, 광주시는 국토해양부의 실태조사에서 전국 7대 도시 중 지난 2007년도 최하위에서 지난해에는 5위로 순위가 올라갔다고 밝혔다.

광주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확대 추진

광주시는 농촌지역 장애인들에게만 실시한 주택개조사업을 올해부터 도시지역 장애인가구까지 확대 추진한다.

시는 지금까지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지역에 한해 주택개조사업이 진행되면서 도시지역 장애인들이 소외된 점을 감안, 시비를 별도로 확보해 올해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1~6급 등록 장애인이며,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인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와 중복된 가구, 고령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순으로 지원된다.

다만,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금융기관 등의 주택개조 비용 융자 추천을 받아 개조비 지원을 받은 가구, 후원금 등으로 개조비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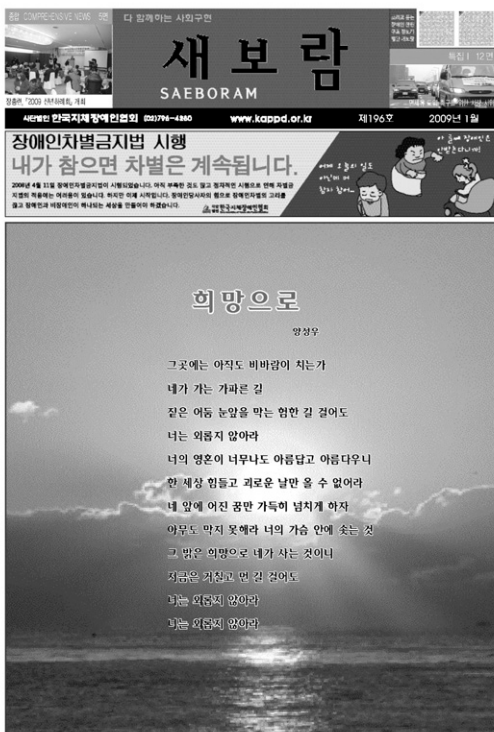
가구당 최대 380만원이 지원되며,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체형에 맞게 편의시설이 개보수된다.

참가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오는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구청 복지사업과(장애인복지팀)로 문의하면 된다.

2010년 달라지는 새보람

국내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1990년 3월 1일 탄생한 월간 새보람이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창간 2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새보람을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480만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장애인복지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신문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의

중앙회 홍보협력팀 이현일
02)2289-4381

■ 2010년 달라지는 새보람

① “독자에, 독자에 의한, 독자를 위한 신문”

–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새보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전국의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진정한 480만 장애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해 주십시오. 세상사는 이야기, 정책 비판 및 제안을 비롯해 그 어떤 주제도 새보람은 환영합니다. 원고는 매달 8일까지 이메일(hambaknun30@nate.com)이나 팩스(796-4281)로 보내면 되고, 기사로 채택되는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② “현장속으로...전문적인 정보 전달”

– 장애계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자료 수집 및 철저한 연구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독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③ 사람들의 이야기

– 새보람 209호(3월)부터 ‘people’ 코너를 신설해 장애인의 소소한 일상과 사람들 간의 따뜻한 세상사는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④ “메일링 서비스 실시”

– 새보람은 매달 15일 발행되는 월간지이며 독자 여러분의 집까지 배송되기까지는 약 일주일(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좀 더 빨리 새보람을 보고 싶으신 독자께서는 새보람 ‘메일링 서비스(메일 전송 서비스)’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링 서비스 신청 : 이메일(hambaknun30@nate.com)
팩스(796-4281)



사단
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근로지원 서비스가 도입된다. (사진-CPL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

노동부,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실시

업무 수행 능력이 있지만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근로지원 서비스가 도입된다.

노동부(장관 임태희)는 지난 1월 25일(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장애인의 사업장 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장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많으나 공식적인 지원 시스템이 없다.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근로자 451,572명 중 45,583명(10.1%)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 중 52.6%인 23,971명이 중증장애인으로서 74.3%가 동료를 통해 지원받고 있다.

또한 사업주도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회피, 장애인고용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경우는 1.1%에 불과하며, 주로 보조도구 지원, 출퇴근지원, 동료근로자 인식개선 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동부는 2010년 예산 15억원을 확보하여, 근

로지원인 100명이 장애인근로자 150명을 대상으로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중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재직 중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등이 해당된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평가를 통해 보조공학기기 사용 여부·직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월 100시간 이내에서 결정하며 제공 기간은 해당 년도 연말까지를 기본으로 하고 재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 동안 총임금의 15%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1월26일(화)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근로지원인은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원업무가 가능한 자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시간당 임금은 6,000원이다.

광주시, 2010년도 지방공무원 231명 선발 장애인 6명 선발 예정

광주시가 올해 지방공무원 231명을 신규 채용한다. 신규채용 규모는 일반직 108명, 소방직 83명, 교육청 근무자 40명이며, 시 일반직은 2009년도 68명보다 40명(58.8%) 늘었다.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오는 5월22일에는 223명(일반직 9급103명, 소방직83명, 교육청 근무자37명)을 선발하는 필기시험을 치르고, 10월9일에는 8명(일반직 7급 3명, 보건연구사 1명, 농촌지도사 1명, 교육청 근무자인 기록연구사 3명)을 선발하는 필기시험을 치른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7월28일과 11월30일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응시대상은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광주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기록연구사·헬기 조종사 응시자는 거주지 제한조건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응시원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klid.or.kr>) 또는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를 통해 접수한다.

- 제1회 임용시험 접수일 : 3.15~3.19
- 제2회 임용시험 접수일 : 7.19~7.23

한편 소외계층에게 공직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구분모집을 실시하는데, 장애인 구분모집 인원은 소방직을 제외한 총 선발 인원 148명의 4.1%인 6명이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인원은 소방직과 교육청 근무자를 제외한 9급 공채 선발 인원의 1%인 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고, 문의사항은 시 총무과(교육고시담당 062-613-2871~3)로 문의하면 된다.

● 고용정보

	업종	업 체 명	근무지	연령	성별	근무내용	급여	보험	연락처	담당자
1	사무직	인덕종합관리	서울	40세 이하	여	경리직	월 100만원	4대보험	2289-4321	최지영
2	생산직	현수막왕국	서울	무관	남	현수막 후가공	월 86만원	4대보험	2289-4321	최지영
3	생산직	CM	서울 동대문	40-50대	여	코사지 제작 생산직	월 80	없음	2289-4321	최지영
4	단순직	우보장	서울 종로구	무관	무관	전단지 부착(500장)	일급 2만원	없음	2289-4321	최지영
5	사무직	효원라이프장례서비스	서울 강동구	30-40대	여	고객상담원 야간근무	월 100만원	4대보험	2289-4321	최지영
6	서비스직	티지엠	경기도 의정부	65세이하	남	아파트 경비반장	월 115만원	4대보험	2289-4322	손가람
7	서비스직	오투기토탈	서울 성동구	60대미만	여	한양대학교내 미화원(5명)	월 86만원	4대보험	2289-4322	손가람
8	서비스직	티지엠	수원 금곡동	60대	남	아파트 건설현장 경비 (4명)	월 100만원	4대보험	2289-4322	손가람
9	서비스직	한국보안컨설팅	경기도 일산	60대 이하	남	아파트 경비	월 95만원	4대보험	2289-4322	손가람
10	단순직	그린산업	경기도 김포	60대 이하	남	병원용 의류세탁	월 130만원	4대보험	2289-4322	손가람
11	서비스직	나라개발시스템	서울 잠실	무관	여	아파트 청소 (2명)	월 77만원	4대보험	2289-4322	손가람

“밴쿠버장애인동계올림픽대표팀 검증 완료”

「제7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폐막, 서울 종합우승…MVP는 정승환 선수

눈과 얼음의 축제 한마당 「제7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지난 1월 29일(금)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의 주인공은 서울이었다. 금 6, 은 5, 동 8을 획득한 서울은 종합 점수제를 통해 순위를 집계한 결과 7,492점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종합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다.

아이스슬레지하키와 휠체어컬링 등 단체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강원도는 지난해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충청북도가 빙상과 스키에서 각각 10개, 5개의 메달을 획득한 충청북도가 ‘깜짝’ 3위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켰다.

대회 ‘MVP(최우수선수)’는 5골을 기록하며 강원도 아이스슬레지하키팀을 우승으로 이끈 정승환(24) 선수에게 돌아갔다. 정 선수는 지난 10월 스웨덴 말뫼에서 개최된 2009 밴쿠버장애인올림픽 아이스슬레지하키 예선전(2009 IPC PWG Qualification Tournament)에서 6골 3어시스트로 MVP급 활약을 펼치며, 대한민국 아이스슬레지하키팀이 사상 최초로 동계올림픽출전권을 획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다. 또한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세계 장애인스포츠를 통틀어 한 달 동안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11월 IPC ‘이달의 선수’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대회 빙상 종목에서는 총 6명의 2관왕이 배출되었다. 남자 500m와 1000m 통합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김도현(부산)을 비롯해 고병욱(서울), 박주열(부산), 임재연(부산), 한성주(광주), 현인아(서울) 선수가 2관왕에 올랐다.

이밖에 ‘격려상’은 전라남도선수단이, 전년에 비해 가장 많은 순위향상을 이룬 선수단에게 수여하는 ‘성취상’은 인천광역시 선수단에게 돌아갔다. ‘모범선수단상’은 경상북도가, ‘지도자상’은 대구광역시 선수단 김도균 감독(스키)이 차지했다. ‘신인 선수상’은 남자 500m DB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광원(전북)선수가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대회의 명승부로 강원도와 경상남도의 휠체어컬링 결승전이 꼽혔다. 밴쿠버동계장애인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로 구성된 강원도 휠체어컬링팀은 경상남도 휠체어컬링팀과 결승전에서 손



「제7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한 서울특별시 선수단 대표들이 우승컵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장애인체육회)

에 땀을 쥐는 박빙의 승부를 펼친 결과 5:4로 승리를 거뒀다. 대회를 마친 휠체어 국가대표팀은 대회가 끝난 후에도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에 남아 밴쿠버장애인동계올림픽을 대비한 맹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회는 16개 시·도에서 총 660명의 선수가 출전한 사상 최대 규모의 대회이자 이천장애인체육종합

훈련원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규모의 종합체육대회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었다.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은 개·폐회식 장소와 대회본부로 활용되었고 훈련원 선수 입촌이 처음으로 이뤄졌으며 냉각기를 이용해 겨울철 활용도가 낮은 수영장 실내공간을 컬링경기장으로 활용하는 획기적인 시도가 이루어졌다.

가수 김지호군 부모 모두 ‘가수’ 출신

아버지 ‘징검다리’ 보컬...어머니 ‘아기 공룡 돌리’ 주제가 불러



시각장애인 가수 김지호군의 부모 모두 ‘가수’ 출신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그룹 징검다리 4기 보컬 출신인 아버지 김형로씨와 함께 ‘KBS 낭독의 발견’에 출연한 김지호군)

SBS <놀라운대회 스타킹> 출연 이후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영혼을 울리는 천상의 목소리’ 시각장애인 가수 김지호(18)군의 부모가 모두 가수 출신인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김군이 아버지 김형로씨와 함께 출연한 KBS 1TV <낭독의 발견> 1월 19일 밤 11시 40분 방송에 따르면 아버지 김형로씨는 캠퍼스 그룹

사운드 중 가요제 최다 수상 기록을 세운 ‘징검다리’의 4기 멤버 보컬로 활동했다.

김군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징검다리는 해변가요제도 그렇고, 강변가요제도 그렇고 상을 많이 탄 그룹”이라며 “아버지는 저보다 목소리가 미성”이라고 소개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머니께서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기

공룡 돌리 주제를 부르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실제 어머니 오승원씨는 ‘아기 공룡 돌리’, ‘떠돌이 까치’ 등 주제를 부른 CM송 가수이다.

가수 출신 부모에게서 태어난 김군은 선천성 녹내장으로 시력은 좋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서만큼은 천재성을 발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군은 최원정 아나운서가 “어떻게 처음 음악을 접했나”라는 질문에 “3살 때부터 세탁기 소리나 선풍기 소리에 있는 음을 피아노로 탁탁 쳤고, 아기가 어머니께서 노래를 한 번 불러주시면 제가 알토로 화음을 넣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군과 김형로씨는 이날 방송에서 징검다리의 히트곡인 ‘뭉게구름’을 직접 불러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아버지는 기타를 치면서 녹슬지 않는 가창력을 뽐냈고, 아들은 간주 부분에서 손가락으로 장단까지 맞추는 무대매너를 선보였다.

〈출처-에이블뉴스〉



척수장애 1급 김지환 작
‘아기도깨비 푸르미’ 중
푸르미와 빵의 모습.
©한국장애인문화예술연대

‘작은 신들의 이야기’에 담긴 ‘잡신’들

지난해 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연대가 구전이나 전설 속에 담긴 흔히 알려지지 않은 ‘잡신’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작은 신들의 이야기’를 펴냈다.

중증장애인들과 비장애인 작가 5명이 참여해 엮은 이 동화집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연대가 기획한 ‘작은 신화시리즈’ 1탄으로 제작된 것.

한국장애인문화예술연대(대표 최현숙)는 향후 시리즈 제작물을 계속 발간할 예정이며, 장애인작가 뿐 아니라 비장애인인 작가들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전했다.

‘작은 신들의 이야기’를 받아보고 싶은 자는 인터넷 카페(cafe.daum.net/ablearts)나 전자우편(wlfjdd112@daum.net)으로 연락처를 남기면 책벌로 받아볼 수 있다.

〈출처-에이블뉴스〉



칼럼

조 윤 경 (장애인 푸른 아우성 대표)

“성 봉사를 해 주시겠지요?”

(장애인들은 성생활 못하고 불쌍하니까 봉사해주자고?)

얼마 전 한 신문에 장애인 성 자원봉사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보수언론에서도 다루는걸 보면 역시 성이라는 주제는 흥미롭고 관심을 끄는 것 같다.

그리고 조경덕 감독님의 <섹스 불란티어: 공공연한 비밀 첫 번째 이야기>라는 영화가 탄생했다. 장애인들의 성이 문제로서 보다 욕구와 권리라는 관점에서 실린 기사와 영화라서 반가웠고 일시적이 아닌 꾸준한 화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그런데 미디어의 한계 때문인지 너무 일부분만 극대화해서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은 왜곡해서 인식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장애인들은 성생활을 못하고 불쌍하니까 봉사해주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조경덕 감독의 <섹스 불란티어: 공공연한 비밀 첫 번째 이야기> 중 한 장면

사회와 소통, 교육기회, 차별, 편견, 경제력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들은 성을 인지하고 욕구를 해소할 방법과 통로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하지만 권리를 눌러왔던 욕망을 건강하고 밝게 풀어가려면 장애인 당사자들과 비장애인, 사회구성원 모두가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갖고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성에 높은 가치를 매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 봉사는 다른 말로 동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장애인들도 일시적인 동정만으로 살 수 없고 그것을 욕구충족이라고 느끼지도 않는다.

장애인의 성 또한 장애인이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의미이며 더불어 장애인의 성은 더더욱 어떤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한다. 그것은 인권의 문제이며 성매매의 문제이자, 여성의 문제이자, 저소득층의 문제인 것이다.

결국 장애인의 성적권리를 찾는다는 의미는 퇴색되고 오히려 힘과 돈 있는 사람에게 성적권리를 빼앗기게 결과가 되어 버리는 꼴이 된다. (성관계까지

해주는) 섹스 도우미와 공장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구의 성도 돈과 동정으로 값을 매겨서는 안 되며 성적 권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성을 도와주거나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성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기 바란다. 만약 김스를 하게 되어 손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해서 성 봉사를 받겠는지.

유색인종이라는 말은 백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동성애라는 용어도 이성애를 중심으로 생겨난 것이듯이 장애인 비장애, 즉 정상적인 몸이라는 기준 때문에 생긴 것이다.

장애인의 성은 장애인만을 기준으로 보지 말고 신성한 성을 중심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나체(누드)는 수치심을 동반한다. 육체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예술적인 작품이든, 흥미만을 주는 상업성 향락이든. 옛날 그림과 남녀 혼욕에서부터 최근 연예인 화보집까지 인간의 나체를 표현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절의 육체를 남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모두 벗는다는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신이 창조할 때 그 모습,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때 그 모습인 나체가 사실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 아닌가.

'벗어서 창피하다'는 수위는 남녀가 다르다. 남성보다 여성의 나체를 조금 더 자극적으로 벗겼을 때, 즉 여성을 상업목적으로 이용했을 때는 부를 안겨주기도 한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이 죄를 지은 시점부터 몸을 가리기 시작했으니 어찌하면 나체 상태로 있는 것은 죄를 저지른 인간 모습이 아닐까. 반면 우리는 목적 없이 그냥 벗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보면 나체 자체가 부끄럽기보다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누구와, 누구의 의지로, 어느 곳을 벗느냐에 따라서 수치심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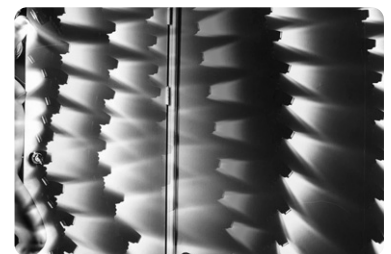
필자도 그렇지만 중증장애인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들에게 노출을 해야 할 때가 많다. 옷을 갈아입을 때와 화장실 갈 때가 이런 경우다. 혼자 은밀하게 치러야하는(?) 일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육체도, 기본

적인 사생활도 무차별 노출해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이 노출하는 것은 예술성도, 상업성도 없다. 그저 먹고 싸고 살아야 하니 신체노출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훈련 되서 둔해졌을 뿐이다. 어쨌든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낄 여유도 없다. 그러나 결코 유쾌하지 않다.

활동보조가 있는데도 수치심 때문에 외출해서는 먹지도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는 중증여성장애인도 많다. 집에 갈 때까지 참는다. 하긴 부모님이 도와 주셔도 다 큰 자식이 엉덩이 내밀기가 그리 편한 마음은 아니다.

연인이나 부부관계에서도 감추고 싶은 순간들이 있는데 반드시 노출해야 할 때 여간 민망하지 않다. 여성장애인이 생리할 때는 더욱 힘들다.

단지 수치심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역량 강화에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회에서 얻을 수



나체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수치심의 정도가 달라진다.

있는 인맥과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가질 기회들을 놓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노출해야하는 심정을 가볍게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남성이 여성장애인 목욕봉사를 한다든지, 양해를 구하지 않고 덥석 껴안는다든지, 성 자원봉사를 하는 장애인 성과 수치심을 무시하는 상황을 아무 죄책감 없이 저지른다. 그러나 누구든 수치심은 존중받아야 할 감정이다.

인간에게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주신 것은 그만큼 우리의 육체가 소중하기 때문일 것이다.



조윤경 대표가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푸른 아우성' 카페의 첫 페이지(<http://cafe.daum.net/beutysex21>)



장애인 푸른 아우성
조윤경 대표

2000/10-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출연
2000/1~2002.1 : 뇌성마비 모임 '어우러기' 회장
2001/12- : '인간극장' 출연
2002/4- : KBS '아침마당' 출연
2002/5- : 장애인 정보광장 '동인' 회장
2003/3~2003.10 :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프랜드 케어' 소장역임
2004 : 서울 디지털 대학 상담심리학부 재학
2005 : 에이블 뉴스 조윤경 성 갈럼 연재
2008~ : '새보람' 조윤경 칼럼 연재
현 도봉푸른장애인독립생활센터 대표

독자수기

본지에 게재된 수기는 지난 2009년 10월 13일(화)과 14일(수) 양일간 올림픽파크텔에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의 주관으로 개최된 『2009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에서 수상한 작품으로, 장애인들의 '애환'과 장애극복을 통한 '삶의 의욕'이 가득 담긴 작품입니다.

“아내에게 행복을 선물 받다” - ②

하 용복 (경기 수원시, 아름다운 배우자상-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너희들에게 해준 것도 없이 고생만 시켰는데, 아빠가 엄마 곁에 있어야 될 것 같다. 정말 미안하구나”고 울음을 꺾 참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저를 보며 안쓰러웠는지 큰아이는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동생들 잘 돌볼게요. 아버지 어머니 곁에서 저희 뭉까지 열심히 병수발 해주세요. 여긴 걱정은 마세요”라고 웃으며 얘기해주었습니다.

큰 아이의 말에 제 마음은 큰 위안과 힘을 얻었고 그 뒤로 아내와 함께 병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큰 아이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여야 했기에 병원 생활이 오래 될수록 사는 형편은 힘들어졌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저는 환자식으로 나오는 밥을 아내와 나눠먹고 다른 환자들이 남긴 거라도 있으면 그 밥이라도 먹으며 끼니를 채웠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기에 다른 사람의 눈초리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

다. 병원 생활 5년 동안 들어놓았던 보험이 있었지만 입원 기간이 길어 보험혜택기간이 많이 지났기에 400만원이라는 빚이 생겼고, 그걸 갚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전재산이었던 가게를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는 처분했지만 아내가 퇴원한다

는 마음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사선생님과 퇴원 전 보호자 면담을 했는데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내 분은 아직 회복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세요. 그런데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꾸 퇴원을 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정신만 제대로 챙기게 되었으면 된 거라고. 아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엄마 없이 지냈다고 이제 돌아가야 한다고. 워낙 아내분의 의지가 강하셔서 퇴원은 하시지만 통원 치료는 빼먹으시면 안 되고 무리한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아내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사실대로 얘기해 주지 않은 건지, 왜 그 몸으로 퇴원을 하겠단 건지, 왜 자기보다 아직도 가족만을 생각하는 건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또 내가 너무나 무능해보여 내 자신에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병실로 들어서자 저는 아내에게 도저히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내이며 누구보다 힘든 사람이 아내일 것이라는 걸 알았기에 저는 아내에게 웃으며 “그래. 집에 가자. 애들이 기다려”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걸어 다닐 수 없었기에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아내는 휠체어에도 앉을 수 없어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마른 아내의 몸을



지난 2009년 10월 13일(화)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09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에서 아름다운 배우자상(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한 하용복 씨 부부. (이렛 줄)

끈으로 고정시키며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마음속으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가는 길에 아내에게 “퇴원 했으니 기념으로 다른 건 못 먹어도 찌개라도 맛있게 끓여 먹자”고 말하며 두부 한모를 사 아무 생각 없이 아내에게 두부를 건넸습니다. 아내는 몸이 불편해 두부를 받지 못하고 놓치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해요”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며 우는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를 배려하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나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좀 더 평범한 사람을 만났더라면 아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까지 힘든 모습을 보이면 아내가 너무 힘들어 할 것 같아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며 “괜찮아. 두부 다시 사 올 테니 기다려”라고 말하며 두부를 다시 사 그 날 저녁 맛있는 찌개를 끓여 온 식구가 5년 만에 식사를 했습니다. 저한테는 제 인생에서 제일 맛있는 식사를 한 순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찌개에 반찬 두세

가지가 다였지만 온 가족이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행복했습니다.

퇴원 후 아내를 돌보아야 했지만 아내와 아직 학교에 다니는 막내를 먹여 살려야 했기에 저는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 도시락과 식사까지 모두 제가 챙기고 싶었지만 아내는 식사와 막내 도시락, 회사에 다니는 아이들의 도시락까지 엄마인 자신이 해야 한다며 가누기도 힘든 몸으로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며 우리 가족의 식사를 차렸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아내는 화를 내며 “아이들을 엄마 없는 아이들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진 노력하고 뒷바라지 할 거예요”라는 아내의 뜻은 너무나도 완고했습니다.

물리치료도 받으러 다니며 아내의 몸은 다행히 서서히 회복을 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불편하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목발을 짚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독자투고



박 성 호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시지회장)

“권리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올 6월 2일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8인(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의원)의 지역 일꾼을 선택할 수 있는 날이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느끼는 일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선거가 남다르게 느껴진다.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이 국민의 주권인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계단이 있는 2층 투표소로 자원봉사자나 선관위 관계자들의 등에 업혀 가는

모습을 각종 언론과 방송을 통해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선거전문가들은 2010년 지방선거 투표율을 4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2010년 지방선거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 장애인 유권자는 67.5%가 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했다.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이동수단이 없거나 투표소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교통 편의만 제공한다면 투표율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이처럼 비장애인들의 투표율보다 장애인들의 투표율은 선거 때마다 올라간다는 조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후보 선택 시 장애인복지 공약을 보고 선택하겠다는 것이 장애인들의 생각이고 보면 예전처럼 한 개씩 끼워 넣기식 공약이나 지키지 못할 공약으로는 장애인들의 표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가올 선거에는 선관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유권자가 소중한 선거권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부재자 신

고 및 투표 절차 안내와 점자형 선거공보 및 소형인쇄물 제출, 투표소 수화통역사 배치,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 제작, 투개표 참관인 구성에 장애인 포함 등으로 장애인들이 진정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관위와 장애계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 단체에서는 참정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들에게 빠짐없이 적극 투표할 것을 홍보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할 것이다.

“권리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은 평범한 진리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행사할 것을 권장·강조하는 바이다.

“스트레스를 잡으면 건강이 보인다”

■ 스트레스의 시대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스트레스에서 탈출하면 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단어 중 하나가 '스트레스'일 것이다. '떨어지는 교권에 교사들 우울증' '직장인 정신과 치료 8년 새 2~3배 늘어' '10대 청소년 사망 중 자살이 2위', 요즘 일간신문에 실린 기사 제목만 봐도 우리 사회의 스트레스는 연령 직업에 상관없이 전 방위적으로 번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인류의 최대 질환은 암이나 에이즈가 아니고 스트레스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일 것이라고 전망할 정도이다.

원래 '스트레스(stress)'라는 말은 팽팽하게 죄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 'Stringer'에서 유래된 말로 고뇌, 억압, 역경 등을 의미하며 신체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는 모든 외부의 물리적·심리적 자극을 통틀어 일컫는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동기유발, 목표성취,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인류가 진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한다.

사회학자들은 21세기를 '스트레스'의 시대라고 부르며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태될 것"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스트레스는 이미 인류의 존재를 위협할 만큼의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스트레스의 원인 및 영향

<동의보감>에 의하면 스트레스의 원인은 외부 환경이나 기후, 음식, 극한의 감정이 가장 큰 요인이다. 춥거나 너무 끈적하게 더운 기운, 오염된 환경, 과식, 가공식품 및 찬 음식, 늦은 저녁시간의 음식 섭취나 약물남용, 과로 등이 한 원인이고 식욕, 수면욕, 색욕, 재물욕, 명예욕 등의 오욕칠정과 너무 기뻐하거나 화를 내고, 근심, 사색, 슬픔, 증오심, 두려움, 놀라움, 긴장감 등 급격한 감정변화도

스트레스의 원인이다.

스트레스를 단지 기분이 언짢거나 두통, 배앓이, 소화불량, 불면이 나타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심할 때는 신체적으로 구내염, 치질, 알레르기, 자가면역질환(류마티스관절염), 성인병, 난치병을 일으키고, 정신적으로는 기억력, 집중력 및 학습능력 저하나 의욕상실 등을 일으켜 비행청소년,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간다.

이외에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 산소와 에너지 소모량을 높이고 노화를 촉진하며 혈액순환의 장애를 일으켜 면역체계에도 영향을 주고 백혈구 세포의 기능저하로 인한 잦은 감기, 기관지염, 편도선염을 야기시킨다. 또 면역력이 저하되면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의 기능이 저하되고 정상세포가 변이되어 암세포로 전환된다. 이외에도 수많은 질병들을 낳으므로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 스트레스 극복 방법

① "마음을 다스려라"



스트레스가 생길 때에는 명상에 잠기거나 올해 여름휴가 계획을 세워보자.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극복하거나 해소하는 삶의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첫번째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동의보감>에도 "신성한 의원은 마음을 다스려 질병이 오지 않도록 했는데 요즘 의원은 질병만 다스린다"고 책망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도 근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는데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감정변화를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엘머 게이츠라는 사람의 실험에 의하면 성인을 분을 내면 뿜어져나오는 탄산가스를 1시간 동안 액화시키면 80여 명을 죽일 수 있는 심한 독소가 배출된다고 하였다. "분을 내어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 라고 말한 성경말씀을 마음속 깊이 담아

두고 실천할 일이다.

스트레스가 생기면 하던 일을 잠시 뒤로하고 '명상'에 잠겨보길 권한다. 어린 시절의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거나 올 여름의 바캉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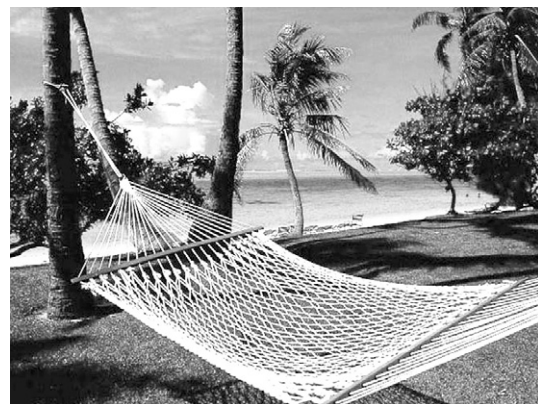
② "식탁을 개혁하라"

다음은 식탁의 개혁이 필요하다. 고단백, 고칼로리를 선호하는 현대인들이 신체에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안기면서 성인병, 난치병, 알레르기 면역질환으로 돌아오고 있다. 평소 식습관의 개혁을 통해 신체에 물리적인 자극을 적절히 감소시키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

과음, 과식, 불필요한 기호식품이 비만을 일으키면서 노화를 촉진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성인병 등을 유발하며, 가공식품, 화학조미료, 색소, 방부제, 향신료 등은 우리 마음을 참을성을 잃게 하며 과격하고 난폭하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한다.

이 때문에 자연식을 위주로 소식하되 복부와 등, 손발은 따뜻하게 하고 천천히 오래 씹어 먹는 습관이 필요하다.

③ "과로를 피하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라"



적당한 휴식은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육체적 과로를 피하고 적절한 운동과 수면이 필요하다. 심표 없는 악보를 본 적이 있는가? 아무리 훌륭한 곡과 연주가라 하더라도 심표 없는 악보는 아름다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연주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적절한 육체적 노동 및 적당한 운동과 수면을 통한 피로를 풀어줌으로써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건강의 비결은 마음을 다스려 정신적·물리적인 스트레스를 적게 받거나 해소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며, 이외에도 식탁의 개혁과 과로를 삼가고 적당한 운동과 수면을 유지함과 동시에 이러한 교훈을 마음속으로만 담아두지 말고 자그마한 것 하나부터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응모요령

‘★’에 있는 말로 단어를 조합해 우편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 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바뀌지 않는 장애인의 삶. 해답은 매니○○○

	★1				2	
	★3		4			
5			6			
			철			
7	8					
			9		10	
11					★12	



지난호 정답

★1백				2상	한	3가
두		4가		생		럼
5산	6전	수	전			주
	산				★7호	구
	8망	9막			설	
		리			10암	11살
	12토	지				사

당첨자

1월호 정답

백호

하수정

김영준

이창희

경기 양주시 광적면(날말맞추기)

서울 성북구 길음동(숨은그림찾기)

경남 김해시 부원동(말풍선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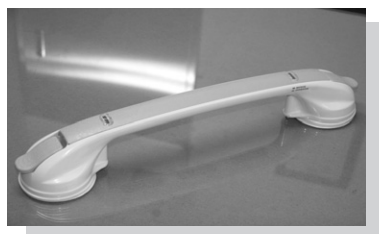
| 가로열쇠 |

2. 큰 절에 딸린 작은 절.
3. 생고무나 합성수지로 해면(海綿)처럼 만든 물건. 탄력이 있고 수분을 잘 빨아들여 쿠션이나 물건을 닦는 재료로 많이 쓴다.
5. 말이나 글을 즐겁고 재치 있고 능란하게 구사하는 능력을 뜻하는 영단어. ‘기지’, ‘재치’로 순화
6. 조화를 뜻하는 영단어. 김윤진이 주연을 맡은 여죄수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은 영화 제목
7. 양다래의 열매. 중국과 타이완이 원산지이지만 지금은 뉴질랜드와 캘리포니아에서 주로 재배한다.
9. 태양에서 아홉째로 가까운 행성
11. 사단(四端)의 하나.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네 가지 마음씨 중의 하나로, 겸손히 남에게 사양하는 마음을 이른다. 인의예지(仁義禮智) 가운데 예에서 우러나온다.
12. 외국인의 영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미국의 교육 기관에서 개발한 영어 능력 시험. (Testing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 세로열쇠 |

1. ○○○균의 감염에 의하여 일어나는 무서운 급성 전염병. 14세기 중기 전유럽에 대유행한 이래 흑사병(黑死病:Black Death)이라고도 한다.
4. 교통의 혼잡을 완화하고, 빠른 속도로 운행하기 위하여 땅속에 터널을 파고 부설한 교통수단(철도).
5. 보리, 밀, 수수 따위의 맥아에 효모를 넣어 발효시킨 후 이를 증류하여 만든 술. 알코올 함유량은 41~61%이며 영국산 스카치위스키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8. 위 점막에 궤양이 생기는 병. 명치 부위에 통증이 있고, 심하면 구토나 하혈을 일으킨다. 위의 점막 세포가 활동력을 상실하여 점막 하조직까지 손상되며, 스트레스나 과음 따위가 원인이다.
10. 여러 사람이 모여 국가나 사회에 끼친 잘못을 소리 높여 규탄함.

틀린그림찾기 DIFFERENT SEARCH



매달 정답자 세분에게 ‘진공 압축 벽손잡이’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두 사진에는 5곳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응모요령 : 2장의 사진 중 아래의 사진에 틀린 부분을 표시하고(2개 이상) 절취한 후,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풍선놀이 WORDBALLOON



응모요령 : 위 사진의 말풍선부분에 여러분의 상큼한 상상을 적어 주십시오. 적은 사진을 절취한 후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주시거나 내용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예제) 사진과 같이 말풍선부분에 내용을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6개 시·도 협회와 232개 시·군·구 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또한 이 나라 480만 장애인들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사랑 나눔 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 회원구분

일반회원 (2천원/월) 일반회원2 (5천원/월) 일반회원3 (1만원/월)
 특별회원1 (3만원/월) 특별회원2 (5만원/월) 특별회원3 (10만원/월)
 단체회원 (연 20만원이상) 기금회원 물품회원

■ 후원금 납부방법

- 지로, 자동이체
 - 후원계좌 : 국민 822-01-0136-451
 농협 033-01-174991

※ 후원금은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신청

① 전화신청 : ☎02)796-4280

② 홈페이지 신청

협회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접속 - 나눔마당 - 후원신청

■ 2010년 1월 후원자 명단

김경희, 김구환, 김진호, 김환경, 남용원, 박소연, 박종형, 선병욱, 양순연, 유유미, 유재복, 윤시현, 윤준오, 이강구, 이강규, 이민수, 이운상, 이은정, 이정희, 임진주, 임채종, 전원칠, 정상호, 주명희, 주승운, 주영래, 주영우, 최문선, 최인준, 최제훈

(후원자님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480만 장애인들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법인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2010 Seoul International Wheelchair Marathon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통역 자원봉사 모집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는 “도전과 극복...서울의 감동을 세계로”를 슬로건으로 오는 5월 2일 개최될 예정인 『제19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선수 및 대회운영본부의 통역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자원봉사접수처

- <http://club.cyworld.com.swim>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자원봉사자모임)

◇ 자원봉사접수기간 : 2010년 2월 16일(화) ~ 26일(금) / 합격자 발표 : 2010년 3월 2일(화)

◇ 자원봉사 기간

- 대회운영 통역 : 2010년 3월 3일 ~ 5월 4일 / 외국선수 통역 : 2010년 4월 29일 ~ 5월 4일

◇ 자원봉사 모집언어

- 대회운영 : 영어

- 선수통역 : 영어, 일어, 스페인어, 태국어, 필리핀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